

01. ③ 02. ⑤ 03. ④ 04. ① 05. ⑤ 06. ② 07. ⑤ 08. ⑤ 09. ③ 10. ②
11. ② 12. ④ 13. ② 14. ① 15. ③ 16. ④ 17. ③ 18. ① 19. ① 20. ④

1. 에피쿠로스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가상 대화의 ‘스승’은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참된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고 보았으며, 참된 쾌락에 이르기 위해 지혜로운 분별력을 바탕으로 욕구들을 구분하면서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만을 충족하는 절제 있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에피쿠로스는 참된 행복을 위해 대중과 속세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지만, 가까운 친구와 은둔 생활을 하며 우정을 나누고 정의롭게 살 것을 강조하였으므로 모든 인간 관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우정은 서로 지적인 즐거움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 중요하고, 정의는 인간관계에서 서로 피해를 주지도 받지도 않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② 에피쿠로스는 부나 명예를 얻기 위해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삶은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삶이며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노력이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에피쿠로스는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정심, 즉 아타락시아(ataraxia)를 참된 쾌락이라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모든 쾌락을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참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⑤ 에피쿠로스는 고통과 불안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려는 데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사치, 부나 명예, 권력에 대한 욕구처럼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충족하지 못해도 고통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노력이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무분별한 욕구 충족에서 오는 쾌락을 탐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쾌락으로부터 멀어지는 쾌락의 역설을 초래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욕구를 충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2. 맹자와 순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고, 선한 본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수양을 통해 도덕적 삶을 완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예(禮)를 배우고 익혀 본성을 교화하고 인위(偽위)를 일으킬 것[化性起偽(화성기위)]을 강조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맹자는 선한 마음 즉, 사단(四端)은 하늘로부터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존해야 하는 것이지만 만약 사욕을 좇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 수양을

통해 다시 회복해야 함을 강조하며 구방심(求放心)을 주장하였다.

② 맹자는 인간은 하늘로부터 사단을 부여받았다고 보고, 사단을 확충하여 사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누구나 인의(仁義)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④ 순자에 따르면 천(天)은 도덕적 천의 개념이 아니라 자연법칙으로, 천은 인간에게 도덕적으로 어떤 것도 명령할 수 없으며 인간의 작위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주체적인 행위이다.

3. 흄과 밀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흄, 을은 밀이다.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양과 무관하게 선호되는 고급 쾌락이 있다고 보았다. 밀은 고급 쾌락은 지성, 감정과 상상력, 도덕적 감정과 같은 인간의 고등 능력을 활용해서 얻는 쾌락이라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흄은 이성인 정념이 지향하는 목적을 성취하는데 최선의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념에 봉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흄에 따르면 이성은 정념이 선택한 수단의 불충분함을 알려 줄 수 있다.

② 흄은 어떤 정념이 거짓 가정에 기초를 두거나 의도적 목적에 불충분한 수단을 선택했을 때 정념은 거짓 판단으로 불합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밀은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선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희생 그 자체가 선이라고 보지 않았다.

⑤ 흄은 행위자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는 승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좋은 것이라고 보았다. 밀은 행복이 바람직한 이유는 각자가 자신의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한에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란다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행위자 자신의 행복만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보았다.

4. 비롤리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비롤리의 주장이다. 비롤리는 공화주의에서 애국심은 자유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위적 감정이자 타인이 겪고 있는 억압과 차별을 해결하는 데 함께 동참하려는 대승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이라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비롤리는 공화주의적 자유의 개념을 비지배로서의 자유로 보았다.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에서는 비지배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시민적 자유의 영역이 넓어진다고 보며, 자유주의적 자유의 개념인 불간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시민적 자유의 영역이 넓어진다고 보지 않았다.

③ 비롤리는 개인들 간 예측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로 보았다. 개인들 간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 국가는 아무런 간섭 없이 중립을 지키

는 것이 아니라 법의 간섭을 통해 개인들이 예측 및 지배 상태를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비지배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비롤리는 오직 자유 공화국만이 조국이 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민족주의자들은 문화적, 종족적, 종교적 동질성이 보존되는 곳이면 어디든 조국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⑤ 비롤리는 자유나 평등, 정의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체적인 나의 국가에서 받아들여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민족의 고유한 가치와 같은 생애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5. 석가모니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석가모니의 주장이다. 석가모니는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다른 존재와 조건 속에서만 일시적으로 존재할 뿐이므로 자아를 현상적 실체로 인식하지 않고 무아(無我)의 견지에서 바라볼 때 현실과 자아에 집착함으로 발생하는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석가모니는 무명(無明)은 존재와 현상이 연기(緣起)에 의해 항상 변화하며 고정된 실체를 갖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무지의 상태라고 보았다. 석가모니는 바른 깨달음으로 무명을 제거하여 자아에 대한 집착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석가모니는 의지로 지은 업(業)에는 필연적 결과로 보(報)가 따른다고 보았다. 석가모니는 이러한 업의 영향이 다음 생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업을 계속해서 짓는 한 생로병사와 고통의 반복 즉,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③ 석가모니는 모든 것은 관계성 속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석가모니는 자신과 만물이 불변의 고유성을 가지지 않음을 연기의 진리를 통해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④ 석가모니는 극단적인 수행 방법으로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의 수행 방법인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하여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다.

6.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아퀴나스, 을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제1원리인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가 인간의 자연적 성향, 즉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신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성향에 의해 구체화되고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아퀴나스는 이성에 의해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고 인간은 자연법이 명령하는 도덕적 의무를 따른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성이 선으로 인식한 자연적인 성향에서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아퀴나스는 어떤 선을 행하거나 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은 신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아퀴나스는 신의 관여 없이 인간이 종교적 덕을 실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③ 아우구스티누스는 현세의 시련을 참고 견딘 인간들을 위해 예비된 곳, 즉 천국에서 궁극적 행복,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지상에서도 선한 생활에 따르는 평화를 누릴 때 인간은 행복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궁극적 행복에 비하면 불행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④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 의지를 통해 신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고 부적절한 대상을 사랑할 수도 있다고 보았으므로 인간은 죄로 인해 자유 의지가 소멸되어 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보지 않았다.

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최고선이며 신의 은총을 통해 인간이 구원받고 지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7. 스토아학파와 스피노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스토아학파, 을은 스피노자이다. 스토아학파는 세계와 만물의 생성에 신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스피노자는 신을 목적을 세우고 자유 의지로 세계를 창조하는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았다. 스피노자는 세계와 만물을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보았으므로 신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지 않았다(ㄱ). 스피노자는 인간의 삶에서 유익한 것은 우리의 이성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하는 것이며 오직 이것에 최고의 행복이 있다고 보았다. 스피노자는 최고의 행복이란 신을 인식함으로써 생기는 정신의 만족이라고 보았다(ㄷ). 스피노자는 사물의 본성에는 어떤 것도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고 보았다(ㄴ).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ㄴ. 스토아학파는 세상에는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사물에 대해 의견을 내고 의욕을 느끼며 그것을 갈망하거나 기피하는 것과 같은 의지적 활동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스토아학파는 우리 마음은 우리가 결정하며 자신의 정신을 신의 의지에 일치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8.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좋음이란 어떤 공통적이고 단일한 보편자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하며 선한 것에서 분리된 선 자체가 없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지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고 보며 그 자체로 욕구되는 선이라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절제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절제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함으로써 도덕적 행동을 습관화하여 품성적

덕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획득할 수 없는 선의 이데아를 비판하며 인간이 행위를 통해 성취하고 소유할 수 있는 선을 얻기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의 탐구는 선의 성취에 봉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은 순수하게 이성적인 부분과 이성에 따를 수 있는 부분, 즉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으며, 덕도 영혼의 구별에 따라 순수하게 이성적인 부분과 관계되는 덕은 지성적 덕이고, 이성에 따를 수 있는 부분과 관계되는 덕은 품성적 덕이라고 보았으므로 영혼의 비합리적 요소는 품성적 탁월성의 형성에 관여한다고 보았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일한 사람이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자제력 없는 사람일 수는 없다고 보았다.

9. 원효와 지눌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원효, 을은 지눌이다. 지눌은 범부도 본성을 직시하는 돈오(頓悟)를 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오래된 나쁜 인식인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점진적 수행을 통해 그 습기를 돈오 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ㄷ). 원효는 석가모니 이후 수행자로 삼학(三學)인 계(戒), 정(定), 혜(慧)를 필수적으로 닦아야 한다고 보았다. 지눌은 돈오 후 점수의 수행으로 정과 혜를 함께 지속적으로 닦아야 함을 강조하였다(ㄴ).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원효는 모든 중생은 이미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ㄴ. 원효는 한 마음[一心(일심)]에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의 두 문이 있으며 이 진여문과 생멸문은 한 마음의 두 측면으로 서로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0. 정약용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인간의 욕망은 과도하거나 나쁜 방향으로 추구될 수도 있으나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인간에게는 욕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욕망은 도덕 행위를 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고 이것을 원욕(願欲)이라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정약용은 영지의 기호는 성(性)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영지의 기호가 가진 선(善) 지향의 경향성 때문이라고 보았다.

③ 정약용은 형구의 기호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가지고 있는 기호로 육체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한다고 보았으나 형구의 기호는 자신의 보존을 위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악은 아니며 형구의 기호에 의해 발현되는 감정과 행동이 중용에 맞으면 선이 될 수 있고 중용에 맞지 않으면 악으로 흐를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④ 정약용은 측은지심을 비롯한 사단의 실천으로 사덕이 형성된다고 보았으나 사단은

도덕 감정 즉 마음이지 이치나 성(性)은 아니라고 보았다. 정약용은 사단은 하늘이 인간에게 기호로써의 성을 부여할 때 함께 부여한 마음이라고 보았다.

⑤ 정약용은 자주지권에 따라 스스로 선이나 악을 택할 수 있고 선을 택하면 공(功)이, 악을 택하면 죄가 된다고 보았으나, 자주지권이 하늘이 부여한 선택권, 즉 마음의 권능(權能)이지, 본성[性(성)]은 아니라고 보았다.

11. 이항과 이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이항, 을은 이이이다. 이항은 부정하고 이이는 긍정할 진술이다. 이이는 이항의 이기호발설을 부정하고 기(氣)가 발하여 이(理)가 타는 기발이승만을 인정한다. 이이는 사단(四端)과 칠정(七情)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타서 드러나는 감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이는 이가 발하여 사단이 드러난다는 이항의 주장을 반박하고 기가 발하여 이가 탔을 때 발한 기가 맑아 이가 가려지지 않으면 사단이 온전히 드러난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항과 이이 모두 긍정할 진술이다. 이항은 이가 발하여 사단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이항은 이가 기를 제어하지 못하면 사단이 온전히 도덕 행위로 완성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기가 발한 칠정이 과불급 없이 구현되면 도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이는 기가 발하여 드러난 감정은 모두 이의 제어를 받아야 도덕 행위로 완성된다고 보았다.

③ 이이는 이를 순수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를 가지는 기질을 맑고 순수하게 교정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하였다.

④ 이항과 이이 모두 긍정할 진술이다. 이항과 이이 모두 이와 기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이와 기가 언제나 결합되어 있고, 만물 또한 이와 기의 결합으로 생성된다고 보았다.

⑤ 이항과 이이 모두 부정할 진술이다. 이는 보편적인 이치로 사물에 두루 통하는 것이지만 기와 결합하여 현실에서 사물을 이루고 있을 때 기질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항과 이이 모두 기질의 간섭을 제거하고 이가 기를 온전히 제어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항은 사단이 기질의 간섭에 의해 온전히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이는 운동성이 없는 이가 활동성이 있는 기 또는 치우친 기질에 가려져 기를 주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12. 루소와 로크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루소, 을은 로크이다. 루소는 국가는 일반 의지가 지배하는 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화국이므로 공동선의 침해를 의도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보았다. 로크는 국가는 공통의 재판관을 의미하는 입법부를 의미하며 입법부가 공동선을 해칠 목적으로 입법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민에게 저항권을 인정한다. 루소는 긍정, 로크는 부정할 진술이다(ㄱ). 루소는 주권이나 입법권을 국가에 양도하지 않으므로 시민이 곧

주권자이자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로크는 공통의 재판관을 형성하기 위해 입법권을 입법부에 위임한다고 보았다. 루소는 긍정, 로크는 부정할 진술이다(ㄴ).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자연 상태는 공유 상태이며 사회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새롭게 얻는다고 보았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 소유권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루소는 부정, 로크는 긍정할 진술이다(ㄹ).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ㄷ. 루소와 로크 모두 자연 상태에서 자연적 자유를 누린다고 보았다. 루소와 로크 모두 부정할 진술이다.

13. 플라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플라톤의 주장이다. 플라톤은 감각적인 현상의 세계는 이데아를 모방하여 생겨나고 끊임없이 생성, 소멸 변화하며,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원형이라고 보았다. 플라톤은 현실의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로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변화하는 현실의 세계를 설명하려면 변화하지 않는 존재인 이데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플라톤은 이데아들을 이데아일 수 있게 하는 궁극의 이데아인 좋음의 이데아는 모든 이데아에 본질을 부여한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모든 사물마다 그 본질인 이데아가 있고 그 가운데 최고의 이데아는 좋음의 이데아이며 좋음의 이데아는 다른 모든 이데아가 인식되고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이데아라고 보았다. 플라톤은 좋음 자체와 정의 자체는 존재의 위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 ③ 플라톤은 모든 이데아 각각은 하나이고 현상하는 사물은 여럿이라고 보았다.
- ④ 플라톤은 정의 자체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사람과 정의로운 국가는 닮았다고 보았으며 국가의 밑그림으로서의 정의 자체, 국가 보존의 원인으로서의 정의 자체를 설명하며 완전한 정의로운 국가보다 뛰어난 정의의 원형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 ⑤ 플라톤은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종적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좋음의 이데아라고 보았다. 플라톤은 좋음 자체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인식 대상이라고 보았다.

14. 칸트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의욕과 도덕 법칙 간의 일치가 불완전한 인간에게 도덕 법칙은 의무이자 명령임을 밝힌다. 칸트는 의욕과 도덕 법칙 간의 일치가 필연적일 때 당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칸트는 인간이 자연 법칙의 영향을 받기에 자연적 경향성을 지닐 수밖에 없고 자연적 경향성을 제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칸트는 의무로부터의 행위를 위해서 경향성의 영향 및 그와 함께 의지의 일체 대상을 전적으로 격리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③ 칸트는 이성이 항상 의지를 완벽히 결정하는 존재는 신성한 존재이며, 자율은 인간과 모든 이성적 존재의 존엄성의 근거라고 보았다. 칸트는 이성이 항상 의지를 완벽히 결정하는 존재인 신만이 자율적일 수 있다고 보지 않았으며, 이성이 항상 의지를 완벽히 결정하지 않는 존재인 인간 또한 자율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칸트는 자기 사랑의 원리가 도덕 법칙에 합치하는 행위를 촉진할 수는 있어도 보편적 규칙을 줄 수는 없다고 보았다.

⑤ 칸트는 도덕 법칙 그 자체만이 존경의 대상이 되며 이성적 존재자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이 된다고 보았다. 칸트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이 행위의 필연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15. 스미스와 케인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스미스, 을은 케인스이다. 케인스는 정부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스미스는 정부는 시장에 간섭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하지만, 개인이나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인 도로나 항만 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은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②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스미스는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는 계획 경제를 주장하지 않았다.

④ 케인스는 실업 문제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스미스와 케인스 모두 자본주의를 긍정하며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였다.

16. 제임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의 강연자는 제임스이다. 제임스는 고정된 원리를 거부하고 현실에서 경험을 통해 유용성이 검증되는 것을 진리로 보았다. 제임스는 진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경험의 과정 속에서 변화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제임스는 진리는 실제적 효과가 검증되었을 때 참이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제임스는 진리는 실재와 관념의 일치이기에 실제적 결과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지 않았다.

② 제임스는 신학적인 관념들이 구체적인 삶에서 유익함이 증명될 때 참이라고 보았다. 제임스는 신학적 관념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므로 유용하지 않아도 참이라고 보지 않았다.

③ 제임스는 관념은 관념 속에 내재된 속성이 아니고 실제로 검증을 통해 실제적 결과가 나타났을 때 참된 관념이 된다고 보았다.

⑤ 제임스는 진리의 소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만족을 위한 예비 수단일

뿐이라고 보았다.

17. 주희와 왕수인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왕수인은 지(知)와 행(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선하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도 아직 행하지는 않았다고 여겨 그 생각을 억누르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지행합일설을 주장하여 선하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나쁜 행동의 시작이므로 그러한 생각조차 그쳐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주희는 이치[理(이)]는 만물의 근원이자 법칙으로서 하나이므로 마음 안의 이치와 사물 안의 이치는 서로 그 근원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주희는 마음 안의 이치와 사물 안의 이치가 현실에서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각자 가지고 있는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지 이치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고 보았다.

② 주희는 격물(格物)을 외부 사물에 즉하여[卽物(즉물)] 그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窮理(궁리)] 것으로 보았고, 치지(致知)를 격물을 바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주희는 치지와 격물의 선후 관계를 논하자면, 격물이 선행된 후 치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④ 왕수인은 양지는 그 자체로 선하지만 기질에 의해 발생하는 욕구에 가려질 수 있으므로 그 가려짐의 병폐를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주희와 왕수인은 모두 맹자의 양지 사상을 이어받아 양지를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주희와 왕수인 모두 수양의 원칙을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는 것으로 삼지만 이를 통해 양지가 생성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주희와 왕수인 모두 양지는 모든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18. 동학사상과 동도서기론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동학사상을 주장한 최제우, 을은 동도서기론을 주장한 신기선이다. 최제우는 모든 사람은 마음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侍天主)를 주장하며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최제우는 수심정기(守心正氣)를 통해 한울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 한울님의 성품과 가르침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신기선은 도에 있어서는 동양의 것, 기술에 있어서는 서양의 것을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신기선은 백성에게 이로운 서양의 것이더라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신기선은 도는 삼강오륜과 효제충신이니 요임금과 순임금의 도는 오랑캐 땅에 가더라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하여 동양의 도[東道(동도)]를 배척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⑤ 신기선은 신분의 차별을 철폐하여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19. 쉘페터와 하버마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쉘페터, 을은 하버마스이다. 쉘페터는 시민의 주된 역할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쉘페터는 시민의 투표는 정치적 지도자를 선출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보았다. 쉘페터는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방법일 뿐이라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쉘페터는 시민들은 그들을 지배할 예정인 대표자들을 선거를 통해 승인하거나 부인할 기회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쉘페터는 민주주의는 시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의미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③ 하버마스는 심의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은 잠재적 이해 당사자를 중심으로 공론장에서 담론을 통한 방식으로 입법자의 의지 형성 과정에 함께 참가한다고 보았다. 하버마스는 모든 시민의 직접 참여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④ 하버마스는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심의의 논증 과정에서 모두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보편적 논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참가자들 자신의 일차적 선호를 수정하면서 도덕적 시민으로 전환하게 되고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

⑤ 쉘페터는 시민들의 선거로 뽑힌 대표자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하버마스는 공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진행되는 시민들의 이성적인 토론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20. 장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도(道)는 인간이 분별적 인식 작용을 버리게 하여 자연과 하나 되는[物我一體(물아일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근원이 된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장자는 도를 만물의 근원이자 법칙이라고 보았다. 장자는 도는 인간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 내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② 장자는 가만히 앉아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를 잊는 좌망(坐忘)의 방법을 주장하였다. 장자의 좌망을 통해 유교의 도덕 법칙을 포함한 일체의 분별과 차별을 잊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장자는 수양을 통해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경지로 일체의 분별과 차별을 벗어난 절대적 자유의 경지인 소요유(逍遙遊)를 강조하였다. 장자는 소요의 상태는 분별 법칙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도를 통해 만물을 바라봄으로써 만물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우쳐야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장자는 인위적 지식이 아니라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 선악, 미추, 시비, 귀천 등의 분별에서 벗어나 모든 사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보았다.